

리얼소프트웨어모델링

Real Software Modeling

Initial Version(2004/02)

Version 2023(2023/11)

뉴테크프라임

대표 컨설턴트 김현남

<http://www.umlcert.com>

kimhn@umlcert.com, [@smarteasy](#)

리얼소프트웨어모델링은 3부로 구성됩니다.

1부는 소프트웨어모델링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객체모델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들에 대한 개념과 표현을 다룹니다.

모든 핵심요소들은 생성과 사용, 전체와 부분이라는 큰 개념적 틀 속에서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설명됩니다.

2부는 개념에 투명한 객체모델링 기법인 행위형식화와 행위형식화를 위한 다양한 사고법들을 다룹니다.

3부는 행위형식화 결과를 기반으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명세하고 설계하고 구현할 것인지를 다룹니다.

이 책을 읽는데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우리’는 뉴테크프라이프와 저자인 김현남을 나타내고, ‘여러분’은 독자를 나타냅니다.

2. 기존의 잘 알려진 개념 정의가 개념 설명에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3. 영어로 들여온 용어는 외국어와 외래어로 구분해서 표기합니다.

object(객체)와 같이 용어에 대한 적합한 우리말이 있는 경우는 외국어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래어로 구분합니다.

4. 외국어지만, 우리말에 해당하는 용어가 원래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래어로 구분합니다.

5. 복합 용어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붙여 써도 읽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붙여 씁니다.

6. 문단을 구분하지 않고 필요하면 행을 구분합니다. 이해를 돕는다면 하나의 문장을 여러 행으로 작성합니다.

7. 글자 색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 부분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

사색이 필요할 만큼 지속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영감을 주는 부분

8. 각 장에 주어진 연습문제와 생각거리에는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습문제는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풀이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항상 자신보다 더 경험이 많아 보이고 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마다 불안해하고 확인을 받

아야 합니다.

연습문제에 확신이 가지 않는다면 본문의 내용을 3회 정독합니다.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없다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연습문제에 대한 답을 게재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연습문제를 푸신 분들이 어떤 면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지 알고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습문제를 풀면서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가이드 해 드리고 다음 버전에서 해당 내용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작성 규칙을 정의해야 할 경우에는 UML 명세에서 사용하는 BNF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non-terminal 키워드는 <>로 에워쌉니다.

terminal 키워드는 ' '로 에워쌉니다.

선택적인 항목이 작성될 경우에는 []를 사용합니다.

다수의 항목에서 선택될 수 있는 항목은 |를 사용합니다.

반복될 수 있는 항목은 항목 뒤에 *를 둡니다.

반복되지만 한 번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면 non-terminal과 []*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그룹으로 묶기 위해서는 ()을 사용합니다.

예) <속성 이름> ':' <데이터타입> [= <기본 값>]

10. 버전을 갖고 독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리얼소프트웨어모델링은 2004년 완성되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핵심적인 개념과 기법은 변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피드백에 따라 설명 방식을 바꾸거나 내용을 보강해 왔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모델링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감히 옛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접한 내용은 우리 또한 이미 접했을 확률이 지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과는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설명한 것은 기존의 것으로는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인류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혜와 이십년이 넘는 우리의 소프트웨어 모델링 경험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스펀지처럼 내용을 빨아들이십시오. 다 빨아들이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뱉을 것은 뱉으십시오.

우리는 이 책이 여러분에게 소프트웨어 모델링에 대해서 알려줄 뿐 아니라 더 큰 세상의 지혜를 얻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2004년 2월 NWC컨설팅을 시작하면서,
뉴테크프라임 대표컨설턴트 김현남